


제 목	담당부서	비 고
① 경북도서관, 어린이를 위한 크리스마스 프로그램 운영 18일 ‘크리스마스에 만나는 영어그림책’ 특별 프로그램 9일부터 초등학교 1학년~4학년 대상, 선착순 접수	경 북도서관	사진 별첨
② 경북도, 올해 감염병 관리 ‘그랜드 슬램’ 달성 신종감염병 및 생물테러 대비·대응 우수기관 수상 감염병 총괄, 방역관리사업에 이어 ‘3관왕’ 등극	보건정책과	사진 별첨
③ 경북도, 배터리 규제자유특구 우수사례발표 사업피급효과 인정받아 중기부 주관 규제자유특구 워크숍 참석 2020년 예비특구계획 발표 및 규제자유특구 발전방안 모색의 장	과학기술 정책과	사진 별첨
④ 경북도, 지능형 횡단보도 시범 설치... 스마트시티 선도 야간보행시 교통안전을 위한 보행자 지킴이 횡단보도용 등대길 (燈大路, Big Lighted Zebra Crossing) 서비스 제공	과학기술 정책과	사진 별첨
⑤ 경상북도 포항·김천·안동의료원 2년 연속 에이(A)등급 쾌거 2019년 지역거점공공병원 운영평가 전국 34개 지방의료원 중 에이(A)등급 12개 기관에 3개 의료원 모두 포함	보건정책과	
⑥ ‘2020 대구경북 관광의해 성공원 대구경북 공동 관광 홍보관 운영 6일부터 이틀간 동대구역에서 내년 2020대구경북관광의해 성공원 개막이벤트 실시	관광마케팅과	사진 별첨
⑦ 경북도, 산동성 해양어업분과위 대표단 파견 환동해 해양산업 발전 중요한 초석 다져	국제통상과	사진 별첨
★ 동 정 - 이철우 도지사, ‘2019년 시군 가축방역평가’ 우수시군 시상 - 이철우 도지사, ‘제312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참석	대변인	

 경상북도	보도자료 【19. 12. 8(일)】	담당부서	경북도서관			
		작 성 자	관 장	김 진 창		
			팀 장	정수미	주무관	김지혜
		연 락 처	054-650-3924			

경북도서관, 어린이를 위한 크리스마스 프로그램 운영

- 18일 ‘크리스마스에 만나는 영어그림책’ 특별 프로그램 -
- 9일부터 초등학생 1학년~4학년 대상, 선착순 접수 -

경상북도는 경북도서관에서 크리스마스를 맞아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크리스마스에 만나는 영어그림책’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난 개관 특별문화프로그램에서 ‘초등학생을 위한 역사특강’이 대회 큰 호응을 얻어 초등학생 대상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18일 오후 3시부터 1시간동안 진행하는 크리스마스 특별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크리스마스 분위기와 어울리는 영어노래와 율동을 배우고 영어그림책을 활용하여 사물의 이름과 특성을 영어로 익힌다.

프로그램의 대부분을 영어로 진행하며, 산타할아버지에게 보내는 크리스마스 카드를 직접 만들어 보는 체험 활동을 통해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크리스마스 행사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크리스마스에 만나는 영어그림책은 경북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9일부터 11일까지 선착순으로 참여 신청을 받으며 초등학생 1~2학년, 3~4학년으로 나눠 프로그램 당 15명 한정으로 진행된다.

한편, 경북도서관은 지난 11월 13일 개관을 전후해 ‘명사초청 인문학 특강’ 뿐 아니라, 가상현실(VR)과 증강현실(AR)을 체험할 수 있는 에코스케치와 동화구연 체험관을 열어 어린이들에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 바 있으며, 도서관 이용자들의 의견을 반영해 내년에는 더욱 더 다채로운 독서문화프로그램을 선보일 계획이다.

김진창 경북도서관 관장은 “크리스마스를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을 아이들에게, 도서관에서 특별한 크리스마스 추억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독서문화 확산을 위해 수준 높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제공해 복합문화공간으로서의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 이라고 말했다.

 경상북도	보도자료 【19. 12. 8(일)】	담당부서	복지건강국 보건정책과			
		작성 자	과 장	김 영길		
			팀 장	구자숙	주무관	이은숙
		연 락 처	054-880-3778			

경북도, 올해 감염병 관리 ‘그랜드 슬램’ 달성

- 신종감염병 및 생물테러 대비·대응 우수기관 수상 -
- 감염병 총괄, 방역관리사업에 이어 ‘3관왕’ 등극 -

경상북도는 5일부터 양일간 인천 그랜드하얏트 호텔에서 개최된 2019년도 신종감염병 및 생물테러 대비·대응 종합평가대회에서 ‘2019년 신종감염병 및 생물테러 대비·대응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명실공히 ‘감염병 관리 선도 기관’임을 인정받게 되었다.

이번 행사는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2019년도 신종감염병 및 생물테러 대비·대응 우수사례 공유와 유공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전국 시·도 및 시·군 감염병 관계자, 국방부·경찰청·소방청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평가는 신종감염병으로 인한 위기상황이 재난 수준으로 피해가 발생할 수 있고 전 세계적으로 테러로 인한 불안 고조, 특히 생물테러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생물테러 발생 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 확산 차단을 위해 각 시·도의 대응역량을 평가했다.


평가분야는 군·경찰·소방 등 생물테러 초동대응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①대규모 모의훈련, ②생물테러 장비관리, ③응급실증후군 감시체계 및 감염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등으로 경북도는 종합 분야 우수기관으로 선정됐으며, 특히 초동대응 유관기관 간 유기적인 공조·협력체제로 합동 모의훈련을 신속·정확하게 수행하여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한편, 도내 생물테러 대규모 모의훈련 분야는 예천군, 생물테러 장비관리 분야는 경산시, 신종감염병 관리는 청송군이 우수기관으로 선정

되어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경북도는 지난 11월 전남 여수에서 개최된 전국 감염병관리 콘퍼런스에서 ‘감염병관리사업 우수기관’, ‘감염병매개체 감시 및 방역관리사업 우수기관’에 이어 ‘신종감염병 및 생물테러 대비·대응 우수기관’ 등 감염병 관리 ‘그랜드 슬램’을 달성하여 3관왕의 영예를 안았다.

김재광 경상북도 복지건강국장은 “3관왕의 필적한 성과는 300만 도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도, 시·군 및 유관기관이 함께 노력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신속하고 빈틈없는 감염병 대응을 통해 감염병으로부터 보다 더 안전한 경북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상북도	보도자료 【19. 12. 8(일)】	담당부서	일자리경제산업실 과학기술정책과				
		작성 자	과 장	이 장 준			
			팀 장	홍인기	주무관	권미선	
		연 락 처	880-2476				

경북도, 배터리 규제자유특구 우수사례발표, 사업파급효과 인정받아..

- 중기부 주관 규제자유특구 워크숍 참석 -

- 2020년 예비특구계획 발표 및 규제자유특구 발전방안 모색의 장 -

경상북도는 5일부터 양일간 전남 여수에서 개최된 ‘규제자유특구 워크숍’에서 배터리 규제자유특구 우수사례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번 규제자유특구 워크숍은 올해 최초 지정된 규제자유특구의 지역 혁신 네트워크 출범식 및 우수사례 공유를 통해 규제자유특구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개최한 행사이다.

이번 워크숍은 지역혁신 네트워크 출범식을 계기로 2020년 시도별 예비특구계획 발표, 규제자유특구 제도운영 전반에 대한 평가, 성공적인 특구계획 수립전략 및 기 지정 규제자유특구의 우수사례 발표 등으로 진행됐다.

지역혁신 네트워크는 지역특성에 맞는 신규 사업 발굴, 유망벤처기업 선별·지원 등 특구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지역별로 구축되었으며 지역티피(TP)와 국책연구기관 등 전문가가 참여하여 지역에 국한된 지역적 계획보다 넓은 시각에서 사업계획 수립을 지원하는 목적으로 구성되었다.

이번 출범식을 계기로 지역인프라와 연계된 신기술 개발로 지역혁신을 견인할 과제 및 기업애로와 지자체 특구수요를 매칭한 수요발굴, 성과보고회 및 컨퍼런스 등을 통해 성과를 홍보하고 특구사업관련 신규 기업을 유치하여 규제자유특구 성과를 확산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번 워크숍에서 경북도는 특구의 성과와 파급효과 극대화를 위한 노력을 인정받아 ‘경상북도 규제자유특구 지정요인 및 활용방법’이라는 주제로 사례발표를 하는 기회를 얻었다.

주요 지정요인으로 중앙부처의 당면 정책과제 해결(산업부:배터리 리사이클링의 산업화, 환경부 배터리 자원순환체계 확립), 지역 정책과제 해결[포스트(POST)철강 프로젝트, 재도약을 위한 산업 다각화], 경북도의 우수한 입지(전기차 보급대수 및 이차전지 등 우수한 연구기관 집적), 관련부처와 공감대 형성 및 적극적 지원, 특구사업의 구심점 역할을 한 지역 앵커기업의 존재(에코프로 지이엠) 등을 꼽았다.

또한 경상북도 규제자유특구 활용법도 제시했다.

첫 번째, 규제자유특구는 ▲기업주도 지자체주도 혁신성장을 위한 제도인프라 ▲산업간 끊어진 밸류체인을 이어줄 기회의 장 ▲지역산업 발전의 핵심적인 정책수단으로 ‘과학산업 혁신 정책모델’인 규제자유특구 재인식 필요를 강조했다.

두 번째는 규제자유특구 조직체계 재정비로 한팀, 하나의 목표(One Team, One Goal)로 체계적 산업생태계 육성, 특구지정 노하우 보존, 기업 중심 규제혁신 정책 강화를 내놓았고,

세 번째로 규제자유특구 사업이 지역혁신성장의 발판이 되도록 ▲상생형 일자리지원 ▲맞춤형 투자유치지원 ▲연구개발특구 등 관련특구와 연계로 파급효과를 극대화 한다는 특구 파급효과 극대화 전략을 내놓았다.

마지막으로 ‘규제는 제약이 아니라 지역혁신성장의 기회, 산업생태계 구축의 기회’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이철우 도지사는 “배터리 규제자유특구 선정으로 경북의 산업 지형도를 바꾸고 있는 것처럼 예비특구[헴프(Hemp) 산업화, 벨로모빌 규

제자유특구]계획도 탄탄한 준비를 통해 내년도 상반기에 꼭 지정받을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

 경상북도	보도자료 【19. 12. 8(일)】	담당부서	일자리경제산업실 과학기술정책과				
		작 성 자	과 장	이 장 준			
			팀 장	홍인기	주무관	권미선	
		연 락 처	054-880-2476				

경북도, 지능형 횡단보도 시범 설치... 스마트시티 선도

- 야간보행시 교통안전을 위한 보행자 지킴이 횡단보도용 등대길(燈大路, Big Lighted Zebra Crossing) 서비스 제공-

경상북도는 야간보행 및 악천후 시 학교주변 등에서 도로횡단 중에 발생하는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최근 경북 구미 옥계 신나리 2차 아파트 주변 옥계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 1개소에 ‘지능형 횡단보도용 교통안전 시스템’을 시범설치 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설치한 교통안전 인프라는 크게 2개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시민(보행자/운전자)에게 향상된 시인성(視認性)을 제공을 위한 지능형 횡단보도 바닥 표지등, 차량 운전자의 안전 인식 확보 제공을 위한 지능형 교통안전 표지판에 횡단보도에 접근하는 보행자 및 차량, 교통신호등 변화를 사전에 인식하는 딥러닝 기반의 보행자 속성 식별 기술이 탑재됐다.

횡단보도에 접근하는 보행자, 교통신호 등 변화를 실시간 인식하여 횡단보도 표지판과 바닥조명이 자동점멸과 점등되어 사전 경고하는 안내서비스를 제공한다.

※ 보행자 접근을 인지하여 횡단보도 바닥 경광등 점등을 통해 안전하게 보행하게 하고, 운전자에게 알려주어 교통사고 저감과 시인성 확보(야간, 우천, 폭설 시 교통사고 예방에 효과적)

경상북도가 지능형 횡단보도용 교통안전 시스템을 설치하게 된 데는 보행자나 운전자가 횡단보도를 보다 쉽게 확인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를 적극 예방하기 위해서다.

최근 우리나라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매년 감소하는 추세지만, 보행 사망사고는 아직도 높은 수치를 유지하고 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통계에 따르면 무신호 횡단보도에서는 운전자 10명 중 1명만 보행자에게 양보한다는 통계가 나왔다. 교통 선진국인 미국, 프랑스, 독일 등 다른 나라들을 보면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보행자를 보면 무조건 멈추는 문화가 정착돼 있다.

우리나라 도로교통법을 제27조 1항을 보면 ‘모든 차의 운전자(교차로 우회전 차량 포함)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 일시 정지해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지켜지고 있지 않아서 큰 문제이다.

따라서 주야간 또는 악천후시 안전하면서도 시인성(視認性) 향상된 보행 환경을 제공해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여 안전하고 똑똑한 도시를 만드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스마트 횡단보도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은 주관 및 관리기관으로 (주)와이즈드림, (주)토이코스, 구미전자정보기술원(GERI) 웨어러블스마트디바이스상용화 지원센터 등 총 4개 기관·기업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이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인공지능(AI) 등 첨단 디지털 기술로 일상생활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만든 우수 정책 사례로 선정되어 지난 11월 행정안전부가 개최한 제1회 대한민국 정부혁신박람회에 참가해서 지능형 횡단보도 등을 시연하고 체험할 수 있는 부스를 운영했다.

또한, 지능형 횡단보도의 바닥조명의 도로매설과 배면발광 정지선은 지속적인 내구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개발된 기술을 적용했다.

전우현 경상북도 경제부지사는 “지능형 횡단보도와 같이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생활안전 개선사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길 바란다

다” 면서 “기업들이 첨단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를 테스트할 수 있는 시범사업을 적극발굴하고 지원해 연구개발결과물을 사업화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다” 고 밝혔다

참고1

지능형 횡단보도용 교통안전 시스템 시범구축

□ 추진배경

- 야간보행 및 악천후 시 학교주변 등에서 도로횡단 중 교통사고가 증가*하고 있어 ICT기반의 스마트 교통안전 시스템을 통해 교통사고 예방 필요

* 횡단 중 보행자 사고가 차대차 사고 등의 다른 유형의 교통사고보다 치사율 높음

< 국내 도로 교통사고 통계 현황 >

- 도로 교통사고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은 23.7조원으로 연간 GDP의 1.45%에 해당, 특히 야간 교통사고 사망률은 주간 대비 약 2배로 8.7조원의 사회적 비용 발생(2016년 기준)
- 악천후 시 일반사고에 비해 사망률 두배 이상 증가(TASS 교통사고 분석시스템, 2017)



(참고1) 주/야간별 사망률 및 사회적 비용




(참고2) 야간/우천 시 교통사고 빈도

□ 시범지역

- 인프라 적용 대상지 : 옥계신나리2차 아파트 후문 늘푸른유치원 연계 횡단보도



 경상북도	보도자료 【19. 12. 8(일)】	담당부서	복지건강국 보건정책과			
		작성 자	과 장	김 영 길		
			팀 장	최은정	주무관	김명희
		연 락 처	054-880-3783			

경상북도 포항·김천·안동의료원 2년 연속 에이(A)등급 쾌거

- 2019년 지역거점공공병원 운영평가 -

- 전국 34개 지방의료원 중 에이(A)등급 12개 기관에 3개 의료원 모두 포함 -

경상북도는 포항·김천·안동의료원이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한 ‘2019년 지역거점공공병원 운영평가’에서 2년 연속 에이(A)등급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지역거점공공병원 운영평가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국 40개 지역거점공공병원을 대상(지방의료원 34개, 적십자병원 6개)으로 실시했다.

올해 평가결과 에이(A)등급은 전국 12개 기관으로 경상북도에서 운영하는 포항·김천·안동 3개 의료원이 모두 80점 이상으로 지역거점공공병원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음을 인정받았다.

* 전국 : 평균 76.1점(포항 83, 김천 82.7, 안동 80.8)

* A등급(12개 기관) : 서울, 대구, 수원, 삼척, 청주, 충주, 홍성, 군산, 포항, 안동, 김천, 서귀포의료원

특히, 포항의료원은 전국 40개 기관 중 우수기관으로 충남 홍성의료원,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에 이어 3위를 차지하여 3일 ‘2019 공공·응급 의료 포럼’에서 보건복지부장관 기관표창을 수상했다.

포항의료원은 일반진료서비스 진료과정(항생제 및 주사제 사용, 표준 진료지침 운영), 포용적 의료지원, 직원만족도 및 리더십만족도에서 상위점수 유지, 거버넌스(지역주민대표 참여 위원회), 환자고충 및 제안처리 체계 운영 만족도 점수(76.1→83.3점)가 개선되어 전국 3위의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운영평가는 ①양질의 의료 ②공익적 보건의료서비스 ③합리적 운영 ④책임 운영의 4가지 영역으로 구성되며, 평가방법은 현지조사, 전문기관을 통한 설문조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산자료, 결산서 등의 자료 분석방식으로 정확성과 투명성을 기반으로 이루어졌다.

경북도내 3개 의료원은 2018년에 에이(A)등급에 이어 2년 연속 에이(A)등급을 획득했다. 이는 지방의료원이 지역거점공공병원으로서 찾아가는 행복병원 및 산부인과 운영, 금연지원센터, 장애인건강검진과 취약계층 의료안전망 구축 등 다양한 사업추진으로 도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공익적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로 보여 진다.

윤종진 경북도 행정부지사는 “경상북도 지방의료원이 40개 지역거점 공공병원 중 상위권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는 하나, 경영개선 및 공공의료 역할 강화 등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다” 며

“도민에게 신뢰받는 공공병원이 될 수 있도록 의료원 기관운영 및 역량 교육 등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 고 밝혔다.

1 평가개요

- (목적)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공익적 서비스를 강화하여 효율적이고 투명한 운영을 실천하여 지역 공동체 강화에 이바지하게 함으로써 지역거점공공병원의 운영 혁신 유도
- (근거)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
- (대상기관) 40개 지역거점 공공병원 (34개 지방의료원, 6개 적십자병원)
* 영주적십자병원('18년 신축)시범평가 대상
- (평가영역) ▷양질의 의료, ▷공익적 보건의료서비스, ▷합리적 운영, ▷책임 운영의 4개 영역에 대해 평가
- (평가방법) ▷현지조사, ▷전문 기관을 통한 설문조사, ▷정성평가, ▷결산서, 심평원 등 DATA 자료 분석 등으로 평가

2 평가결과

- '19년도 지역거점 공공병원 운영평가 결과는 전체 평균 76.1점(100점 만점)으로 '18년 대비 평균 점수 0.9점 상승
- 평가결과 1위 홍성의료원, 2위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3위 포항의료원

[A등급] 80점 이상	[B등급] 70점 이상
서울, 대구, 수원, 삼척, 청주, 충주, 홍성, 군산, 포항, 안동, 김천, 서귀포 (12개소)	부산, 인천, 이천, 포천, 안성, 의정부, 파주, 원주, 속초, 천안, 공주, 서산, 남원, 순천, 목포시, 울진군, 마산, 서울적십자, 상주적십자, 거창적십자 (20개소)
[C등급] 60점 이상	[D등급] 60점 미만
강릉, 영월, 진안군, 강진, 제주, 인천적십자, 통영적십자 (7개소)	-

* A등급(80점 이상), B등급(70점 이상), C등급(60점 이상), D등급(60점 미만)으로 절대평가

** 등급 내 순서는 순위와 관계없이 시·도, 적십자병원 순

 경상북도	보 도 자 료 【19. 12. 8(일)】	담당부서	문화관광체육국 관광마케팅과			
		작 성 자	과 장	김 병 곤		
			팀 장	손삼호	주무관	김교준
		연 락 처	054-880-3204			

‘2020 대구경북 관광의 해’ 성공가원 대구경북 공동 관광 홍보관 운영 **- 6일부터 이틀간 동대구역에서. 내년 ‘2020대구경북 관광의 해’ 성공가원 깜짝 이벤트 실시. -**

경상북도는 내년도 ‘2020 대구경북 관광의 해’를 맞아 대구시와 함께 6일과 7일 양일간 동대구역 앞 광장에서 대구경북 공동 관광 홍보관을 운영했다.

이번 행사는 경상북도, 대구시, 봉화군, 코레일 등 각 기관이 참여해 ‘2020 대구경북 관광의 해’ 성공적 추진의 염원을 담아 동대구역을 찾은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내년도 대구경북 관광의 해를 집중 홍보했다.

공동 홍보관 내부에서는 중장년층의 옛 추억을 불러일으키는 2020대구경북 관광의 해 달고나 뽑기와 추억의 군고구마 나눔 행사 등 다양하고 색다른 이벤트로 동대구역을 오가는 관광객들의 발길을 사로잡았다.

홍보관 외부에서도 다양한 행사가 이루어 졌는데, 경북도에서는 영상차량의 대형스크린을 통해 경북의 테마열차인 나드리열차와 오는 12월 21일 개장을 앞둔 분천 산타마을을 홍보하고 산타복장과 함께 키다리 아저씨 이벤트로 관광객들에게 분천 산타마을 분위기를 전하며 열띤 홍보를 펼쳤다.


또한, 대구시에서도 대구시티투어버스와 ‘2019 대구관광사진공모전 수상작’을 전시하여 대구의 명품 관광지들의 아름다움을 함께 홍보했다.

한편, 경상북도와 대구시에서는 ‘2020 대구경북 관광의 해’ 성공적

추진을 위해 내년에 ‘2020대구경북 관광의해 해외프로모션’과 ‘대구경북 관광홍보 공동캠페인 추진’, ‘대구경북 공동 관광설명회 개최’ 등 국내외 다각적인 공동 마케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김부섭 경북도 문화관광체육국장은 “대구와 경북의 상생발전을 위해서는 양 시도간의 협력이 절실히 필요하며, 이번 행사가 내년도 2020 대구경북 관광의 해 성공적인 추진에 초석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관광분야의 지속적인 교류협력을 통해 경북도와 대구시의 관광산업을 한 단계 더 발전시켜 타 지역의 모범이 되는 사례가 되도록 양 시도가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말했다.

 경상북도	보도자료 【19. 12. 8(일)】	담당부서	일자리경제산업실 국제통상과			
		작성 자	과 장	박 노 선		
			팀 장	김광훈	주무관	노병희
		연 락 처	054-880-2732			

경북도, 산둥성 해양어업분과위 대표단 파견

- 환동해 해양산업 발전 중요한 초석 다져 -

경상북도는 4일부터 6일까지 중국 산둥성 웨이하이(威海)시에서 개최된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NEAR) 산하 해양·어업 분과위원회에 환동해산업연구원 소속 전문가 등 대표단을 파견했다고 밝혔다.

산둥성이 코디네이터를 맡고 있는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NEAR) 해양·어업분과 위원회는 2008년 창설된 이래 올해 여섯 번째 국제포럼을 개최하게 되었다.

이번 포럼에는 중국, 한국, 일본, 러시아의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NEAR)회원단체 대표와 각국의 해양산업 전문가, 기업가 등 4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현대 해양산업포럼’, ‘해양 생물과 건강식품 산업’, ‘해양 장비 발전을 위한 스마트 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발표 및 의견교환이 이뤄졌다.

특히, 이번 포럼을 주관한 산둥성은 부성장 위귀안(于国安)과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NEAR) 김옥채 사무총장이 임석한 가운데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NEAR) 해양·어업 분과위원회 사무국’ 및 ‘동북아 수산물 교역센터’ 설치를 위한 현판식을 갖는 등 해양산업 성장을 통한 지방정부 발전에 각별한 관심을 보였다.

경상북도 산하 환동해해양산업연구원 김용환 수석 연구원은 포럼의 기조연설을 통해 경상북도의 해양산업 육성 실태를 상세히 설명하고 “중국, 일본, 러시아 등 환동해권 국가 관련 기관과 협력을 확대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한편,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NEAR)은 1996년 9월 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4개국 29개 광역자치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경상북도가 주도하여 창설한 국제기구로서 동북아시아지역 광역자치단체 간 행정·경제·문화·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 있어서 교류와 협력을 통해 지역의 공동발전과 번영의 실현을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동 정

□ 이철우 도지사, ‘2019년 시군 가축방역평가’ 우수시군 시상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12. 9일(월) 오전 10시 접견실에서 ‘2019년 시군 가축방역 평가’ 우수 시군을 시상한다.

□ 이철우 도지사, ‘제312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참석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12. 9일(월) 오전 11시 경상북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리는 ‘제312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 참석한다.